

트럼프, 알래스카 LNG사업에 韓 540억달러 투자 예고

블룸버그·로이터 보도…백악관서 韓 대미투자 프로젝트 공개
韓, 알래스카 LNG ‘추후 협의’ 분류…트럼프, 일방 발표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540억달러(73조원)를 투자하는 것도 발표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알래스카 LNG 사업을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상태라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29일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백악관에서 2000억 달러(270조원) 규모의 한국 대미투자 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발표에는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4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2명의 소식통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수 있다며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540억 달러가 투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최근 국회에 20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추후 협의 과제로 분류한 상태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확정된 프로젝트가 아닌 것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 발표 내용이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에 대

한 한국의 투자를 기정사실로 발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노스슬로프 지역에서 추출한 천연가스를 약 1300여km의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으로 운반해 액화한 뒤 수요지에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지만,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미국 측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취재진과 문답하다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기도 했다.

알래스카는 11월 초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합주로 분류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당시 알래스카에서 압승했으나 현재 상원의원 자리를 놓고 공화당 현역의원 덴 설리번과 민주당 후보 사이에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설리번의 승리를 견인하는 차원에서 계획됐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설리번은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중 알래스카를 찾아 지원 유세도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조선 협력(1500억달러)과 전략적 투자(2000억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47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연합뉴스

미·이란 종전협상 물밑 조율…교착 돌파구 찾을까

호르무즈 재개방·봉쇄해제 맞교환
제재면제·핵사찰 복원 등 줄다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7일 계획'을 거부한 와중에 종전협상 복원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물밑 중재가 뉴욕과 워싱턴DC를 오가며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상호 신뢰가 바닥난 상황에서 합의안의 구체적인 이행 순서를 둘러싸고 막판 대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전 양해각서(MOU) 폐기 후 몇 달 만에 이뤄지는 이번 협의가 교착상태를 깰 분수령이 될지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린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뉴스(FT)에 따르면 협상단은 전날 미국과 이란 양측 사이를 오가며 중재에 나선 데 이어 이날 잠정 합의안의 최신 수정 초안을 이란 측에 전달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협상 내용을 보고받은 2명의 관료를 인용해 이처럼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9일 양측 간 간접 대화가 이뤄졌는지는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논의 중인 잠정 합의안 초안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을 허용하고 미국은 이에 상응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테헤란 수도의 반트럼프 선전물 앞을 지나는 행인.

연합뉴스

양측 대화를 보고받은 한 관료는 협상에 진전은 있지만 합의안의 이행 순서를 둘러싸고 미·이란 간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FT는 소개했다.

이행 순서를 논의 중인 쟁점 사안에는 이란산 원유 제재면제 복원, 이란의 해외자산 일부 동결 해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포함한 이란 핵 프로그램 관련 사항들이 포함됐다고 이 관료는 언급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으면

제재 완화나 동결자금 해제에 나설 의향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가짜 뉴스”라고 부인한 바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란과 종전 MOU를 체결했을 때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를 합의했다가 미국 내에서 ‘항복이나 다름없는 MOU’라는 거센 역풍에 직면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결보기로나마 승리했다는 모양새를 얻으려 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연합뉴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